

인트라넷 (Intranet)

한국전자계산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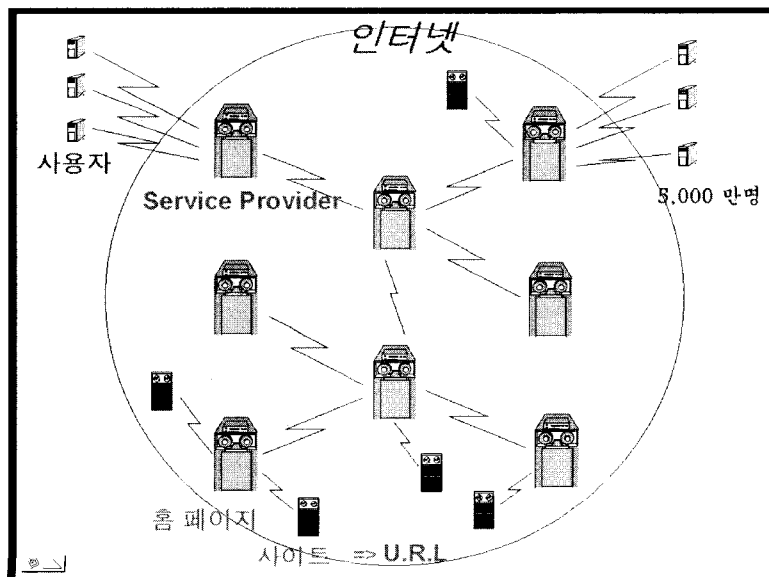
I. 서 론

인터넷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재인가?, 황재인가?

사람들은 인터넷에 대한 흥분과 갈망으로 인터넷이란 녀석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아직도 컴퓨터에 대해 게임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이란 새롭게 배워야할 짐으로 다가온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인트라넷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탄생은 분명 우리에게 황제이니깐.....

인트라넷은 최근 기업체의 네트워크 등장한 기술이다. 아직 인터넷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렇듯이 우리가 채 터득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은 계속 태생되고 있다.



<그림 1> 인터넷 개념

우선 인트라넷과 인터넷의 개념을 위에 있는 그림 1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림 1은 인터넷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 인터넷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망이고, WWW(World Wide Web)은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멀티미디어형 연관정보검색 기술이다. 현재까지 기술에 맞추어 인트라넷을 설명하면, 인터넷에서 WWW 기술을 이용한 사내 통신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극히 일반적인 정의이며, 좀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인트라넷의 출현 배경을 살펴본 후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자.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강력하게 불어닥친 C&C (Computer and Communication)의 열기로 많은 기업체들이 1인 1PC 시대에 돌입하였고, 아울러 LAN (Local Area Network)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급증하였다. 특히 90년대 들어오면서 LAN 업체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PC를 가진 많은 기업체들이 LAN 설치에 투자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해 볼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LAN의 하드웨어적인 비용에 비해 LAN을 이용한 효용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 LAN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았고, LAN의 기능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LAN을 프린터 공유나 파일 공유 등의 작업 외에 특별히 활용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물론 몇몇 업체들은 전자 우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 전자 우편 망을 개설하였지만 이러한 사내 전자 우편서비스만으로는 조직내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이슈로

등장하지 못했다.

기업체내에 필요한 기능은 우선 각 부서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정보 전달. 예를 들면 전자 결제 또는 전자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한 직원간의 의사 전달과 나아가서는 고객들에게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과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술로 생각되어 왔고,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93년에 등장한 WWW이라는 신 기술은 이미 35살이나 먹은 인터넷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줬고 기업체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WWW은 그 동안 사용자들에게 골치거리였던 운영체제간의 장벽을 한 순간에 없애버렸고, 여러 업체들이 서로 색다른 표준을 제시하던 멀티미디어 분야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다. 또한 특정 업체의 구속된 기술이 아닌 개방형 기술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이러한 WWW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이미 중년이 되도록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있던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93년에 WWW 기술이 선보이면서 통신업계와 컴퓨터 업계에 대 변혁이 일어났고, 초기에 WWW을 이용한 기업체의 소극적인 광고에 인터넷과 WWW을 이용하던 기업들이 작

년부터 이미 기업체에 구축된 LAN과 WWW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체내의 새로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인트라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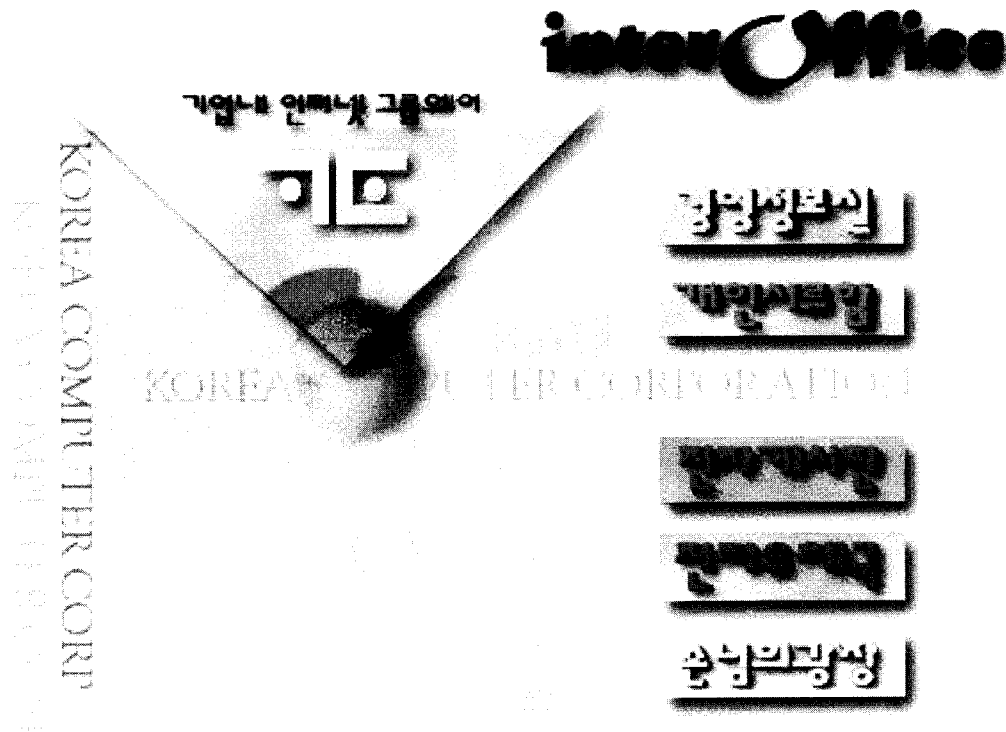
그럼 이제 다시금 좀더 정확하게 인트라넷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진정한 인트라넷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트라넷은 기업체내의 온라인 프린터다"라고 정의를 내리겠다.

II. 인트라넷의 기능 및 응용

인트라넷이 제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2>에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 기능 (Communication)
 - 전자 우편, 전자 게시판, 공개 자료실, 전자 회의, 전자 결제
- 데이터 베이스 (Database)
 - 사내 정보의 DB 구축 및 공유, 검색, 고객에게 일부 정보 제공
- MIS와의 연동
 - Data Processing, MIS, EIS와의 연동

일차적으로 전자 우편의 경우 인트라넷을 이용한다면 사내 구성원끼리 전자 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문자 우편뿐만 아니라, 음성 메일, 영상 메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영상 메일이 인트라넷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주고받



<그림 2> 인트라넷의 초기화면

을 수 있고 또한 이미 6,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거주하고 있는 네티즌과도 전자 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국내 PC통신 서비스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가입된 사용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사내 우편망과 더불어 외부와도 전자 우편 시스템이 연동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자 우편 시스템이나 그룹웨어 등은 폐쇄적이어서 이러한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연령이 많으신 경영자분들에게 영상 우편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 우편 기능을 조금 변경한 서비스가 전자 게시판이나 공개 자료실 등의 서비스이다. 전자 우편, 전자 게시판, 공개 자료실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 우편은 특정인에게 전달 되는 형태이고, 게시판과 자료실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내의 조직원끼리 동호회 운영이나 사우 동정, 문화 마당, 정보 광장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미 몇몇 대기업들은 자체 통신망이나 C.U.G(Close User Group)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룹웨어와 인터넷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과 그룹웨어가 비교 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의 기능에서만 비교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그룹웨어의 경우 대부분 전자 우편, 전자 게시판, 전자 결재 등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의 기능과의 비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다음에 소개할 기능들은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며 그룹웨어에서는 제공되지 못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광의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룹웨어와 인터넷의 비교는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커다란 기본 철학의 차이와 인터넷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소개할 두 가지 중요한 기능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룹웨어는 단지 인터넷의 일부 기능에 한가지로 구분되며 비교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인터넷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내 정보의 DB 구축 분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진정한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 과제가 주어지는 분야이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 현황을 살펴본다면 거의 0%에 가깝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표 1〉 인터넷 기능 비교

	송신인	수신인	제 목	내 용
전자우편	있음	지정된 사람	있음	문자/파일
전자 게시판	있음	지정하지 않음	있음	문자
공개 자료실	있음	지정하지 않음	있음	문자/파일

욱 더 심해진다. 타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은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며, 또한 자기 내 부서간에도 정보의 공유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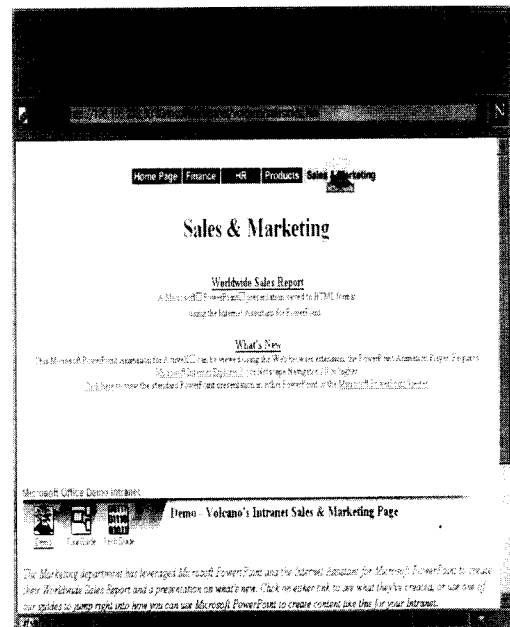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들을 DB화 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확고한 결심이 필요한 분야다. 인트라넷의 특징이 WWW이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나 자료를 만들때부터 DB를 구축해나간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자료들을 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타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줄일 수 있고, 상호간의 많은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로 MIS와의 연동부분이 나의 생각으로는 인트라넷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기업내에 LAN을 설치하고,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이유는 정보의 공유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기업내의 대부분의 업무는 일차적인 Data Processing 수준까지는 대부분 진행되었다. 일상적인 회계처리나 판매 관리, 재고 관리, 인사 급여 관리, 고객 관리 등의 전산화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Data Processing의 결과물은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처리된 회계 자료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이 주어진 직급이나 업무 영역에 따라 선별

적으로 제공되며 또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 업무나 경영자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면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중앙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터미널 방식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는 단지 정리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고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인트라넷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문자 형태의 자료 뿐만이 아니라, 도표나 차트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화된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 자료와의 연동성이나 나아가서는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경영자가 예측이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다.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에서 관리자나 경영자를 위한 분석 도구 중에 엑셀을 능가할 만한 소프트웨어



<그림 3>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데모 사이트

는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 회사가 인트라넷 전문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업체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인트라넷 데모를 보면 단지 몇 개의 엑셀 파일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Ⅲ. 결 론

호스트에 원시 자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라넷으로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는 가공을 하거나 수정을 가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MIS 나 EIS가 정형화된 자료를 단지 경영자가 보기 편안하게 멀티미디어화 시켜서 제공하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영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결과물로 전달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의 여러 가지 기능중에 한가지가 바로 계산기능이 아니라 분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현재 국내의 기업 정보화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서두에서 말한 "인트라넷은 기업체내의 온라인 프린터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인트라넷 제품의 대부분은 전자 우편이나 전자 게시판, 전자 결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년 쯤 부터는 과연 어떤 업체가 기존 MIS와의 연동에서 실력을 발휘하느냐가 변수로 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IS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곳이 선두주자로 등장할 것이다.